

이규호·전철원 각자대표 체제... 친환경·중고차 사업 확장

코오롱모빌리티 그룹 출범

오너 4세 이규호, 경영 최전선에
2025년 매출 3조6000억 목표
이달 31일 재상장 완료 예정

코오롱그룹이 모빌리티 사업을 분할해 육성을 본격화했다. 오너 4세인 이규호 사장이 경영을 맡아 세대 교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4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코오롱글로벌에서 독립해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다. 오는 31일 재상장도 완료할 예정이다.

코오롱모빌리티는 수입차 유통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구조 재편 및 확장을 통해 종합 모빌리티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이규호대표와 전철원 대표가 각자 대표를 맡아 각각



코오롱모빌리티 이규호 대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전철원 대표

미래성장전략 수립과 신사업 발굴 등, 세일즈와 A/S 네트워크 관리 등 신설 법인의 영업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위해 5대 핵심 모빌리티 사업으로 ▲브랜드 네트워크 강화 ▲인증 중고차 확대 ▲온·오프라인 역량을 겸비한 사업자로 진화 ▲사업 카테고리의 확장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고

객 경험 제공 등을 추진한다. 우선 유통사업은 지프와 폴스타 등 브랜드를 지속 도입하는데 이어 전기 오토바이를 비롯한 친환경 이동수단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중고차 사업도 그룹 차원으로 통합 조직을 신설해 전국 단위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시 효과 극대

화, 아울러 전국 94개 네트워크와 영업망을 기반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체계적인 AS를 앞세워 유통 확대도 모색한다.

신사업도 준비 중이다. 구독 및 시승 플랫폼 서비스, 럭셔리 굿즈 등 유통 포트폴리오 확보 등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라이프 타임 파트너'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한 유연한 구조도 갖췄다. 코오롱아우토와 코오롱오토모티브, 코오롱제이모빌리티를 자회사로 편입, BMW와 뱅앤올룹슨 및 보스 판매 사업도 영위한다. 모빌리티사업에 전문화된 경영진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해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한다는 포부다.

구체적인 목표는 2025년 매출 3조 6000억원에 영업이익 1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매출을 기준으로 60% 이상

성장하겠다는 것. 신차와 중고차까지 판매량을 3만대에서 5만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의 각자 대표를 맡은 이규호 사장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업구조의 혁신과 미래가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각자대표를 맡은 전철원 사장은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1등 DNA를 탑재한 임직원들과 함께 고객에게 '원앤온리(One&Only)'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신차 중심의 사업에 다양한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고객 중심의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40~100GB 중간요금제 나오나... 이통사 "출시·개편 검토"

(기가바이트)

정부, 올해 중간요금제 활성화 방침
이통3사, 정부 정책기조 대응 나서

SKT "새로운 형태 요금제 준비"
KT "고객 니즈에 맞게 방향성 고민"
LGU+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 없어"

정부가 월 40~100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통사들에게 유도하자 SK텔레콤과 KT만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통사들이 월 24GB에서 31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전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에서 "24~31GB 데이터로는 높은 데이터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끌어모을 수가 없다"며 "40~100GB에 해당하는 중간요금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빈번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통사들은 새로운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로 중간요금제에 대한 이용자 불만을 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최근 개편했거나 개편된 요금 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기존 5G 중간요금제(24~31GB) 이상 구간에도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며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신사들은 31GB 이상 데이터를 가진 중간요금제가 나오게 되면 매출 실적에 악재로 작용해 통신사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지난해 24GB에서 31GB 수준의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40~100GB 용량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그동안 100GB 이상을 써왔던 이용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용량의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라며 "40~100GB 용량의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통신업계의 수익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실제 기존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에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KT와 KT는 오히려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5G 가입자 증가로 오히려 수익이 늘고 ARPU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1인당 내는 월 통신요금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다"며 "중간요금제 출시가 통신사의 수익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새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인데, 다른 요금제와 관계도 살펴야 하고 고객이 원할 만한 요금제를 설계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5G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 데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5G 고객이 늘어나면서 고객의 요구도 늘어나고 사용하는 패턴도 증가하고 있어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추가 요금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중간요금제는 고객 니즈에 맞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측은 "중간요금제 관련 대응 계획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네이버 '클로바·파파고' AI학회서 논문 100건 발표

네이버 클로바·파파고가 지난해 글로벌 탑티어(top-tier) 인공지능(AI) 학회에서 100건의 정규 논문을 발표했다.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최상위 산업계 연구 조직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학술 성과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인정받은 2021년(69건) 대비 연구 역량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발표한 논문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 기준 8000회 이상의 피인용 수를 기록했다.

클로바와 파파고의 우수한 AI 경쟁력은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네이버클라우드 중심 기술 조직에서 한층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해 클로바와 파파고, 웨스모바일, 웨일 등 각 조직의 기술 역량을 네이버클라우드로 결집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인텔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

코어 H, P, U 시리즈 등 32종 신제품

인텔이 13세대 프로세서를 모바일로도 확대했다.

인텔은 4일 13세대 인텔 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32개 신제품을 공개했다.

인텔은 이번에 처음으로 24코어를 탑재한 13세대 인텔 코어 H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를 출시했다. DDR4와 DDR5 메모리를 동시에 지원할 뿐 아니라, PCI5세대를 지원하는 등 고유한 기능을 제공한다. 최대 5.6GHz 터보클럭 속도로 노트북 시장에서는 가장 빠르다.

P시리즈와 U시리즈도 함께 공개했다. 최대 14코어에 DDR4와 DDR5D램 지원, 와이파이6E에 섀터블트 최대 4개 지원 등이다.

/김재용 기자 juk@

인텔은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가 다양한 제조사 300개 이상 제품에 탑재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폼팩터에도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보 노트북 사양에도 함께 제공돼 오랜 사용시간과 성능, 멀티 디바이스 경험 등도 가능하다. 특히 액세서리 파트너에도 '엔지니어드 포 인텔 이보' 프로그램을 확장해 다양한 주변 기기에서도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인텔은 엔트리급 컴퓨터를 위한 N시리즈도 함께 출시했다. 인텔 7공정으로 구축한 새로운 코어로, 셀러론을 대체하게 됐다. 합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제품으로 크롬 OS와 윈도우 등 생태계 파트너십을 통해 50개 이상 디자인 출시가 예상된다.

엔비디아 車 인포시스템에 '지포스 나우' 지원

별도 장비 필요없어... 현대차 우선 지원

'지포스 나우'가 자동차로 본격 진출한다.

엔비디아는 CES2023에서 지포스 나우를 특별한 장비 없이 자동차에 제공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지포스 나우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다.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스팀과 에픽 게임즈 스토어 등으로 출시된 1000개 이상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 획기적인 로우 레이턴시 기술로 실시간 플레이가 가능하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안드로이드나 브라우저 기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지포스 나우를 지원하게 됐다. 엔비디아 드라이브 생태계 구성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BYD, 폴스타에



차량 인포메이션 시스템 내 '지포스 나우' 구동 이미지 /엔비디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주차 중이나 충전 중, 혹은 후방 엔터테인먼트 차량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엔비디아 오토모티브 부문 부사장인 알리카니(Ali Kani)는 "게이머들의 라이브러리에서 인기 있는 타이틀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과 수십 개의 무료 게임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제주항공 에어카페 제주산제품 확대

제주항공이 기내 에어카페에 제주산 제품 판매를 확대한다.

제주항공은 아침미소목장 우유잼 캔디, 가파도삼촌 진심샌드, 제주 감귤도우 피자, 제주 삼다수 등 품질 좋은 제주산품들을 에어카페 메뉴에 추가한다.

이로써 제주항공이 1월에 기내에서 판매하는 제주산 상품은 모두 40개로, 지난해 12월 기준 33개였던 것에 비해 7개 품목이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에어카페 메뉴 확대에 맞춰 기내에서 주문하면 지정된 곳까지 무료로 배송하는 섀림배송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해당 상품은 ▲제주어명 수산물 4종류 ▲제주담음 특산 식품 4종류 ▲제주떡집 오메기 떡이며,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20% 할인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